



20살의 자네트

PC 버전 **보기**에 특화되어있습니다. 모바일 열람 시 비교적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알립니다.

<보기> → 인쇄 레이아웃을 끄고 열람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프로필의 상당 부분이 수정되었으므로 일독 부탁드립니다.

BGM :: Reasons to Stay

▷ 접근 권한 확인...

▷ 권한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 문서의 열람은 관내 데스크탑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네트 워커] 문서가 갱신되었습니다. 업데이트된 문서를 열람하시겠습니까?

▶ **[YES]** / [NO]

▷ 문서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 길은 제가 엮니다. ”

나아가기로 결심한 이들이, 뒤 돌아보지 마세요.

| 외관 |





@runi_comm

워커가 머리를 길렀다고? 그 자네트 워커가?

소름이 돋을 정도로 8년 전과 똑 같은 얼굴. 희고 굴곡이 있는 머리카락이 허리께로 내려와 흔들리는 것 외에는 달라진 점조차 찾을 수 없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나마도 이제 성인이 되었나 싶게 생겼을까. 다른 어떤 색도 비치지 않는 새하얀 빛깔은 그리 곱다고 평가하기도, 보기 싫다고 눈살을 찌푸리기도 어렵고 어딘가 신묘한 기분이 들곤 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이 그에게는 어두운 빛의 제복을 꼼꼼하게 챙겨입어도 숨길 수 없는 백색이 있었다. 본래는 검은 동공마저도 곧잘 희게 물들고는 했으니.

척 보기에 맥아리 없다, 쇠는 낮이다만 가녀린 선이며 열은 색소가 가지고 있는 기백이 있었다. 선명한 금빛 눈동자가 쳐들지 않는 고개 덕에 내려앉은 그림자 아래에서 번뜩일 때면 그래, 꼭 사람보다는 수풀 속에 숨은 짐승의 것과는 같았지. 새하얀 머리카락과 함께 촘촘하게 자리잡은 얇고 긴 속눈썹 역시 희게 눈꺼풀 끝을 수놓은 모양이 괜히 신묘하다. 작고 여린 선들이 썩 봐줄 만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외부 자극에 둔한 편인지 대체로 무심한 인상이다.

키조차 자라지 않아 여전히, 얼굴만큼이나 기운 없어보이는 왜소한 체구. 다만 오래전부터 몸을 움직이는 훈련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저 마르고 영성해만 보이는 외관과는 달리 몸짓 하나하나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 몸을 낮추고 타이밍을 재는 동물처럼 느릿한 움직임. 깔끔하게 끈을 묶어둔 군화마저 발소리를 죽이니 고요하기만 하다. 꼼꼼하게 여민 옷에 더불어 작은 손을 감싼 흰색 장갑. 장갑 손등은 그림자의 실루엣을 따라 가시면류관이 장미꽃을 감싸고 있는 검은 색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다. 활동복을 입은 모습은 좀처럼 보기 힘들다.

억지로 그 몸을 덮어둔 검은 망토만이 당장이라도 희게 흐려질 것 같은 가느다란 선을 붙잡고 있는 듯했다.

§폴더 이동 중...§

| 코드네임 |

Ilias / 일리아스

ΙΛΙΑΣ

§폴더 이동 중...§

| 최종 계급 |

소위

§폴더 이동 중...§

| 이름 |

Jeanette Walker / 자네트 워커

§폴더 이동 중...§

| 나이 |

25세

§폴더 이동 중...§

| 키 / 몸무게 |

155 cm / 42 kg

| 성격 |

깡은 여전히 좋지. | 책임감 있고 | 정직한 사람 |그거면 되나?

정면을 향한 눈 | 토막난 문장 | 무뚝뚝한 낫 | 사람이 좀, 기운이 없지? | 썩 다정하게 굴어. 사람 기분 이상하게.

여전한 사람. 그래. 변하질 않는 사람...... 변한 점?

꼬집어 말하긴 어렵지만, 사람이 좀... 지쳐 보인다고 해야하나. 물론, 그냥 착각일지도 몰라.

“이제 됐습니다. 다 필요없으니 살아만 있으세요.”

한숨과 같은 목소리. 예전보다도 **생존이 우선**이라는 가치관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보인다. 말버릇처럼 하던 말을 기억하는가? 오래 사십쇼. 최대한 건강하고 평화롭게, 오래오래. 여전히 살아만 있어. 다른 건 필요 없으니 살아만. 그저 다른 것들에까지 일일이 날을 세우고 경계하기엔 **너무나도 지쳤다**. 그 외의 일에 신경 쓸 기운이 남지 않았다. 설 시간이 없었던 사람이 이제야 좀 지쳤나,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과정. 따라서 남의 생각이나 가치관에도 별 관심이 없다. 고집을 부리는 일도 거의 사라졌고, 깊게 파고드는 대화는 곧잘 피해버린다. 이전과 같이 무덤덤하고 평온한 얼굴에 쌓인 피로감이 문득문득 눈에 띈다. *어쩔 지랄케 위태로운 사람이 있을까.*

“걱정 마세요. 한번 한 약속은 지킬 테니.”

변함없이 하기로 말한 것, 결심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 물론, 여전히 매 순간 **신중하다**는 것을 알 수 없을 만큼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고 약속의 말을 내뱉는 것처럼 보이지만, 책임질 수 있는 약속만 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그만큼 한번 말한 이상 당연하게 지키는 아이. 한구석 상당히 느슨한 태도에 가벼운 언어를 구사하지만, 여전히게도 거짓말은 “안” 한다. 무뚝뚝하되 무른 사람. 결국은 지독하게 다정한 사람. **그러나 끝내는 무심한 사람**. 눈이 마주치면 기꺼이 손을 내밀고, 뻗어진 손을 잡아주고, 당겨주고, 끌어올려주는 온기가 사무치도록 어울리는 사람. *그리고 그 온기마저 흐릿한 사람.*

“물어 뭐합니까? 그래요. 내가 당신들을 친애하지 않을 리가.”

여전히 직설적이고 담담하지만, 어쩐지 **핵심을 피하고** 있나, 싫게 굴곤 했다.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 부러 원하는 대답을 내놓아주기도 하고, 반대로 원하는 대답만큼은 결코 내놓지 않기도 하는 **변덕스러운 모습** 역시 무척 지쳐보인다. 겁도 없고 걸어오는 싸움은 피하지 않는다. 거의 삶의 신조에 가까운 듯. 그러나 **발화점이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다. 특히나 당신에게는 더더욱. 아마 주먹질을 했더라도 딱히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네가 먼저 쳤으니 어쩔 수 없지...... 에 가까운 모습일 것이다. 타인의 화를 돌을 일도 없으니 큰 사고 없이 지나왔으리라. *변한 적 없이 남아있었을 뿐으로.*

친애하나, 애착하지 않는다.

예전과 같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 살아가는 데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다만, 모든 불꽃이 태울 것이 남지 않으면 사그라든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흰 얼굴과 왜소한 체구, 정처없는 발길, 무심히 내려앉는 시선.

그래, 사라질 것 같은 그 눈.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눈.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것털같은 시선을 담은 눈…….

저는 오래 살 겁니다. ……정말로?

§폴더 이동 중...§

| 이능력 |

아브락사스

ABPASAΣ

외부의 충격을 무형의 방어막으로 변형시켜 밀어낸다.

그 모습이 일순간 충격의 근원지로부터 날개가 돌아 질주하는 듯해 이름 붙였다.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 깨어진 유리 파편 같은 빛의 조각이 떨어져있는 모습이 꼭 알 껍데기 같다는 것도 능력의 주인이 이름을 짓는 데에 한 몫 영향을 끼친 듯. 제3자의 눈에는 단순히 충격을 튕겨내는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유심히 관찰하면 일순 일렁이며 빛을 발하는 방어막이 꼭 날갯짓을 하는 듯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다. 역시 크게 눈에 띄지 않을 수준의 미미한 발광이 동시에 나타난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에서야 은은하게 빛을 발하는 모습이 보인다, *but*…….

일차원적으로만 생각하더라도 꽤 큰 결점이 존재한다. “충격을 변형한다”는 것은 곧 일단 외부에서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뜻. 능숙한 능력의 운용 외에도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는 방식의 훈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Penalty::

일정 시간 이상 사용하면 환각에 시달리는데 본인의 말로는 눈이 멀 것처럼 강한 빛이 산발적으로 플래시 터프리트 시야에 점멸한다고. 능력을 사용할 시 동공이 희게 변색하는데, 아마 전기가 튀는 듯한 형태로 빛이 터져 직접적으로 동공 안쪽을 물들이는 듯하다.

다만, 본인이 주장하기에 앞이 안 보이게 되는 것은 아니니 이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고, (실제로는 눈을 얼음 송곳으로 마구 찌르는 통증이라지만) 능력 사용을 마치면 손끝, 발끝과 같은 신체의 말단부터 마비가 오기 시작한다. 순서는 오른손, 오른발, 왼손, 왼발. 점차 중심부로 타고 올라오는 마비 증상은 검사를 통해서도 신경이나 근육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해 앞서 말한 부작용에 의한 정신적인 문제로 추정된다. 마비 증세는 반나절이 채 가지 않는다.

§

| 이능력 계열 |

대분류: 방어계

소분류: 물리계

§

| 궁극기 |

아브락사스의 추락

선명한 두 눈동자가 희게 빛나고, 꼭 달빛을 머금은 듯 새하얗던 몸에서 본인으로부터 무형의 날개가 뻗어나간다. 당연하지만 만질 수 없고, 물론 날아올 수도 없다. 다만 이를 지난 물리적 충격을 튕겨내며 빛무리처럼 흩어지고 만다.

§폴더 이동 중...§

| 스탯 |

힘 ■□□□□

민첩 ■■■■■

행운 ■□□□□

정신력 ■■■■■

체력 ■■■□□

§폴더 이동 중...§

| 기타 |

Who are you?

뭘 묻습니까. 다 아시면서.

- ❖ 0815 :: 사자궁 Leo :: 해바라기 Sunflower :: 감람석 Peridot
- ❖ 여동생과는 연락을 끊었다.
- ❖ 고저없고 무심한 말투. 변하지 않았다. 종종 문장 사이에 공백이 자리잡고, 짧은 한숨을 삼키는 일이 늘었다.
- ❖ **더이상 길을 잃지 않는다.**
- ❖ 여전히 정리정돈의 귀재이다. 깔끔한 생활을 선호하나, 유독 느슨하고 게으르고 굴 때가 잦다.
- ❖ 오른손잡이였으나, 어째서인지 **왼손잡이가 되었다.** 언제부터라고 꼬집어 말하긴 어렵지만, 이제 섬세한 작업에는 왼손만 사용한다.
- ❖ 뜬하더라도 일기를 쓰는 습관은 버리지 않았다. 책장을 가득 채운 노트들. 그리고 그 아래 수납해둔 상자를 채운 것은…….
- ❖ 1개월 간 달리 한 일이 없다. 다만 제 방 한켠에 난초를 키우고 있다. 이사를 하던 당시 선물로 받은 듯한데, 생각보다 재미를 붙이고 있는 건지.
- ❖ 애지중지하는 검은 새하양계 세공한 **레이피어.** 무척 단단하고 날카롭다. 주인을 쫓 빼달았다.

- ❖ 손질해서 한결 짧아진 길이의 **공단 리본**은 한쪽 옆머리를 고정하는 데에 쓰고 있다. 물론 손재주가 좋지 않은 것 역시 여전해 손수 묶는 건 무리. 바깥 부분은 광택이 있는 **붉은색**이다. 종종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길게 늘어진 리본 끝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 ❖ 새삼스럽게 어디 불편한 곳은 딱히 없어보이는데, 제 골반계까지 올라오는 정도 길이의 **케인**을 짚고 다닌다.
- ❖ 멍하니 다니다가 혼자 **잘 넘어진다**. 평소에는 여전히 허술한 듯 싶다.
- ❖ 여전히, “부작용”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은 도통 보이질 않는다. 해봤자 방이나 **의무실**에서 잠시 누워있기밖에 더하던가?
- ❖ 향수는 가끔 뿌린다. 이전과 같은 레몬이나 오렌지, 혹은 자몽. 가벼운 과일향 계열. 다만 평소에는 은은한 난향이 감돈다.
- ❖ 죽은 듯이 앉아, 혹은 누워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은 지금도 적지 않다. 위태롭게 난간에 앉은 날개가 부러진 새처럼 위태롭다.

§폴더 이동 중...§

| 소지품 |

일기장

일기에 칙칙한 군대 이야기를 쓸 리가 없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공단 리본

다른 사람 손을 좀 자주 빌렸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빌리게 생겼네요.

케인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삼단으로 접히기도 한다고요? 불래요? (철컹철컹)

§폴더 이동 중...§

| 관계 |

메일런 코스모스 / 산책 가지겠습니까.

필수적인 훈련 외에 자발적으로 나서서 참여하지 않는 편인지라, 다른 동기들이 훈련에 참여하러 가서 한적할 시간이 되면 나란히 벤치에 앉아서 사탕을 까거나 정처없이 산책을 하곤 하는 사이였다. 이제 둘 다 길을 헤매고 다니지는 않지만, 비슷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종종 노닥거린다.

클로드 B. 렉스 / 다시는 그 등을 내 앞에,

서로의 가정사를 포함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고, 속을 내보이면서 애뜻한 상대가 되는 것도 같았는데……. 어느 날, 클로드가 단체 훈련에서 자네트를 대신해 강한 공격을 방어하다 결국 기절까지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그리고 묘하게 그를 피해다닌 지 아마 두어달 즈음 되었는가?

에크만 카테시안 / 에크만… 못 견뎌어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야 그가 담배를 끊었다는 사실 정도일까.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에는 기억이 있다. 자연스럽게 뺨을 수 있는 손. 사람을 자연스럽게 업을 수 있는 온기의 교환. 이전과 같다. 달라진것이 없다는 소소한 위안이 무엇을 버티게 하는지는 모른다. 잔잔하고 미지근하나, 그만큼 편안한 공기가 흐른다.

웨스트 블레이크 / 모름지기 대화는 눈을 마주치고.

크게 변한 점 없이 무난히 지내고 있지만, 최근 종종 지친 기색을 드러내는 모습에도 캐묻지 않고 넘기고 있다. 그럼에도 신경이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니라, 대화 도중 종종 눈을 감아버리는 등 시선을 돌리는 모습이 발견된다. 용건이 없어도 시덥잖은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노닥거리기도 하는 듯.

펠릭스 마르글로드 / 훈련, 괜찮으십니까?

펠릭스에게 펜싱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자 친구, 자네트 워커. 서로 훈련 중 가벼운 부상을 입힐 때도 종종 있으나 둘 다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상당히 변했다, 고도 볼 수 있을 법한 최근의 동향에도 펠릭스를 대하는 태도를 달라지지 않는다.

시그너스 K. 델타 / 너를 잊지 말라고 했잖아. 정말 말 안 듣네.

여전히 친한 친구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전처럼 여러 감정이 드러나지는 않아도, 살갑고 밝지는 않더라도 그저 덤덤하게, 서로를 친애하고 기댈 수 있는 상대로 여긴다. 지친 자네트도 잊어가는 시그너스도, 여전히 서로를 친구라고 생각하며 곁에 머무르고 있다.

네레이드 블랙소르베 / 이제 길을 잃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이전만큼 자주 노닥거리는 것 같지는 않지만 미묘하게 서로 시선에 담기는 일이 많다. 최근 자네트가 종종 지친 기색을 보이는 탓에 여전히 곧잘 돌봐주는 것 같다. 더이상 길을 잃지 않는 이와, 계속해서 그가 길을 잃는 모습을 떠올리고 고요히 지켜보는 관계.

시타 D. 셀루미노 / 기운을 차리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3년간 함께 기숙사를 사용하면서 쌓은 친밀감이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공유하는 이들의 앞에서 풀어진 모습을 곧잘 보이는 자네트는 물론, 그의 옆에 있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는 시타까지, 서로를 상당히 편한 상대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베첼 베르트람 / 결국 선택하셨군요. 고생하셨습니다.

훈련병 시절 깨끗하다, 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을 잃어버린 베첼을 향해 평소와 별다를 바 없이 구는 자네트, 이후 오히려 친근하게 구는 베첼.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전의 관계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막상 당사자들이 저런 태도이니 현재의 친밀감이 어느 정도인지, 함께 있을 때 편안한 관계가 맞는지조차 알 방도는…….

미키 엔 / 오늘 야식 뭐 드실래요?

하우스 메이트 겸 금연 메이트. 나름대로 호의적으로 일부 생활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듯. 청소는 자네트가, 설거지는 미키가 담당한다. 종종 머리를 묶어주거나 적적할 때 거실에 앉아 맥주 한캔씩 꺼내놓고 노닥거리는 등 별 마찰 없이 잘 지내고 있다.

잃어버렸니? 글썄.

라이넬 포트리시

지금도 그대로. 변하지 않고 믿고 있으니 당신은 뜻대로 하세요.

비슬로 크로노스

잊은 건지, 잃은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좀 떨어지시겠습니까?

! ERROR !

이하 정보에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
..
.

말했잖아요. 거짓말은 하지 않으니 일단 안심하세요.
